



프로축구 광주·전남 담금질 시동

광주, 신인선수 20명 합류 6강 향해 호흡 맞추기 돌입

전남 "올시즌 목표 우승" 中 中 25일간 전후 캠프

그라운드 불을 기다리는 전남 드래곤즈와 광주 상무 선수단이 전지훈련 체제에 돌입했다.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 선수단이 18일 중국 톈진으로 전지훈련을 떠났다. 광주 상무는 제주도 서귀포에 전지훈련 캠프를 차렸다.

2010시즌 K-리그와 컵대회, FA컵 우승을 목표로 내세운 전남은 내달 11일까지 25일간 중국에서 전격 가다듬기에 나선다. 이번 전지훈련에는 김권 2기를 맞는 박항서 감독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 6명과 선수 37명, 지원 스태프 6명 등 총 49명이 참가한다.

선수들의 훈련캠프지인 톈진은 중국 국가대표팀이 훈련지로 사용하는 곳으로 2개면의 축구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체력 훈련 시설이 갖춰져 있다.

지난해에 마찬가지로 중국 톈진을 전

지훈련지로 선택한 박항서 감독은 조직력 강화와 공격 다변화 및 전술능력 키우기에 초점을 맞추고 훈련을 지휘할 계획이다.

공격 다변화를 우선 목표로 세웠던 박항서 감독은 지난 시즌까지 상무에서 맹활약했던 공격수 김병중을 영입하며 구상의 폭을 넓혔다.

기본기와 전술훈련 등을 통해 시즌 첫 걸음을 떼는 전남은 전지훈련 동안 12차례 연습경기를 갖고 실전 감각을 키울 계획이다.

2군 선수단은 내달 1일 귀국해 광양에서 훈련을 이어간다. 1군 선수단은 오는 2월 11일까지 중국에 머문 뒤 14일 클럽하우스로 복귀한다.

2009시즌 초반 돌풍의 주역이었던 광주 상무도 다시 운동화 끈을 꿰었다. 상무는 제주와 영광을 전지훈련 캠프지로 선택

했다.

18일 제주도 서귀포로 출발한 상무는 내달 7일까지 전지훈련을 실시한 뒤 광주로 돌아온다. 1주일가량 광주에 머물게 되는 상무는 2월 15일부터 21일까지 영광으로 자리를 옮겨 2010시즌을 위한 막바지 준비를 한다.

이번 전지훈련에는 신인선수 20명을 비롯한 선수단 40명과 코칭스태프 등 50여명이 참가한다.

지난 8일 군사훈련을 마치고 국군체육부대에서 적응기간을 가졌던 신인선수들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고 광주팬들 앞에 나설 준비를 하게 된다.

기초체력훈련 위주로 제주도 훈련을 준비하고 있는 이강중 감독은 대학 및 실업팀과의 연습경기를 통해 2010구상을 할 계획이다.

광주를 연고로 해서 뛰는 마지막해인 만큼 6강 진출을 향한 선수단의 각오도 남다르다.

한편 신인선수로 상무에 새로 가세한 국가대표 미드필더 김경우는 국가대표팀 일정에 따라 팀 합류가 늦어질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볼턴의 이청용(왼쪽)이 18일(한국시간) 볼턴 리복스타디움에서 열린 2009-2010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아스널과 홈 경기에서 상대 수비수와 공을 두고 있다. /연합뉴스

동계 전국사격대회 나주서 '탕'

동계 전국 사격대회가 19일부터 나주에서 열린다.

전남도는 18일 "전국 57개팀 5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하는 '도지사배 전국 공기총 사격대회'가 나주 전남도 종합사격장에서 19일~22일까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동계 전지훈련 기간 중 개최되는 만큼 동계전지훈련팀 유지 및 동계 전지훈련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사격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33개의 국내·외 각종 대회를 개최해 전남을 스포츠-레저산

22일까지 종합사격장

57개팀 500여명 참가

업의 중심지로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미 2012년 세계대학선수권대회 유치를 목표로 대한사격연맹을 통해 세계사격연맹과 교섭중이다.

도는 또 대회 기간 지역 특산물 코너를 설치, 운영하면서 '전남=친환경농업의 메카'임을 적극 알리는 한편, 국제규모 사격장 시설을 활용, 지속적인 대회 개최를 추진해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전국 사격대회로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대회가 열릴 전남도 종합사격장은 10m 90사대, 10mRT 3사대, 25m 50사대, 50m 60사대, 클레이 3조 등의 종목별 경기장과 부대시설 등을 갖춘 국제규모 사격장으로, 지난 2008년 신축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만점 데뷔' 기성용 발목부상으로 2~3주 결장

성공적으로 유럽무대에 데뷔한 기성용(셀틱 FC)이 발목부상으로 잠시 휴식에 들어간다.

기성용의 에이전트사인 IB 스포츠는 18일 "기성용이 17일 풀크르와의 데뷔전

때 후반 22분 오른쪽 발목을 접질려 2~3주가량 재활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이었던 이날 기성용은 위협적인 프리킥으로

인원과 팬들의 눈길을 끌며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는 등 맹활약했다.

기성용은 후반 22분 드리블을 하다가 발목을 접질렀으나 셀틱이 교체 카드를 모두 사용하는 바람에 풀타임으로 경기를 소화하면서 부상 부위가 악화됐다.

기성용은 2~3주 가량 재활을 한 뒤 2월 초 그라운드로 돌아올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거포 김연경 39점 폭발

일본 진출 후 최다득점... 최고 용병 자리매김

한국여자배구의 간판 거포 김연경(22·JT 마블러스)이 일본프로배구 데뷔 첫해부터 최고 외국인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17일 도레이 에로즈와 경기에서 일본 진출 후 최다인 39점을 몰아 때린 김연경은 각종 공격 순위에서 1위에 올라 이를 석 자를 확실히 알리고 있다.

대표팀 스파이크는 기본이고 전전 리베로 못지않은 서브 리시브 실력까지 갖춰 팀 공헌도가 높다.

김연경은 총득점에서 231점을 올려 2위인

브라질 출신 올리베이라(하사미쓰·195점)를 밀쳐잡고 따돌리고 선두 질주 중이다. 세트당 공격 득점(6.03점)과 백어택(46.7%)에서도 1위를 달린 김연경은 공격성공률(48.5%)에서 2위, 서브 리시브 정확성(71.1%)에서 4위에 올랐다.

'김연경 효과' 덕분에 만난 하위팀 JT는 개막 후 10전 전승을 내달리며 폭주 중이다. 김연경의 특보적인 활약상은 다른 구단 외국인 선수와 비교했을 때 더욱 두드러진다. 파이오니아 레드윙스와 오카야마 시걸즈



를 제외한 6개 구단은 모두 외국인 선수를 보유 중이다. 대부분 브라질과 미국 출신인데 공헌도는 유일한 아시아선수 김연경에 훨씬 못 미치는다.

올리베이라만 세트당 공격득점(2위), 공격 성공률(9위)과 세트당 블로킹(13위)에서 선전할 뿐 나머지는 김연경과 현격한 격차를 드러내고 있다. 일본 최고의 세터로 평가받는 다케시타 요시와와 활력공함을 이투며 '재팬드림'을 이뤄가는 김연경이 남은 18경기에서도 폭발적인 강타를 퍼부어 역대 용병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팀은 패했지만... 이청용 '펄펄'

아스널전 풀타임 맹활약

팀내 최고공점 감독에 눈도장

잉글랜드 프로축구 볼턴 원더러스에서 뛰고 있는 미드필더 이청용(22)이 풀타임 활약을 펼쳤으나 팀 패배에 고개를 숙였다.

이청용은 18일(한국시간) 영국 볼턴의 리복스타디움에서 열린 2009-2010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 아스널과 홈 경기에서 선발로 나와 전후반 90분을 뛰었지만 경기에서는 아스널이 볼턴을 2-0으로 물리쳤다.

아스널은 이날 승리로 승점 45점이 돼 47점의 2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바짝 추격했고 볼턴은 여전히 승점 18점으로 20개 팀 가운데 19위에 머물렀다.

3일 링컨시티와 FA컵 경기에서 득점포를 가동한 뒤 오랜만에 경기에서 나선 이청용은 초반부터 활발한 움직임으로 선 보였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상대 골문 바로 앞의 오른쪽 측면에서 두 차례나 전진으로 공을 잘 내렸으나 동료 공격수들이 이를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했다.

리그 강팀인 아스널을 상대로 초반 '반짝 기세'를 살리지 못한 볼턴은 전반 28분에 만

저 득점을 허용했다.

아스널의 세스크 파브레가스가 볼턴의 골대 정면에서 에두아르도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며 오른쪽 슈트로 첫 골을 뽑아냈다. 이청용은 전반 30분에 정면에서 기습적인 오른발 슈트를 날려봤지만 아스널의 골키퍼 마누엘 알무니아가 골을 막아냈다.

후반에도 이청용의 활발한 움직임은 계속됐다. 후반 2분과 3분에 연달아 오른쪽 측면에서 상대 골문 정면으로 공을 잘 올렸지만 매트 테일러, 타미르 코넬의 슈트 이 빗나갔다. 후반 8분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왔고 이번엔 상대 수비를 맞고 아스널 골문 안으로 들어가는 듯했지만 골키퍼가 이를 막아냈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 볼턴은 결국 아스널에 추가 골을 내줬다. 후반 33분 아스널의 에두아르도가 왼쪽으로 치고 올라가다 정면으로 띄워 준 공을 프란 베리다가 오른발로 차넣어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최근 다섯 경기에서 2골, 1도움의 상승세를 이어가던 이청용은 이날 골점 포인트를 보태지는 못했지만 오른쪽 측면에서 공격 가담에 충실하며 시즌 도중 해임된 개리 맥슨 감독의 후임으로 9일부터 사령탑에 오른 요안 코일 감독의 눈도장을 받았다. /연합뉴스



19일(화)

▲V리그 <흥국생명 : 도로공사>(16 : 40), <대한항공 : LG손보>(18 : 40·KBSN S-SPORTS)

▲프로농구 <KCC : SK>(18 : 50·SBS스포츠), <전지랜드 : LG>(19 : 00·MBCE-SPN)

▲핸드볼 큰잔치 남자부 결승 1차 (21 : 00·SBS스포츠)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조선대학교 · 동강대학 평생교육원 수강안내

관심하신 분야의 수강으로 내 인생이 성공한다.
관심학: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시주명리학·동강대학교

관상이란?
사람의 얼굴에는 성격과 인생행로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 사람의 자나와 과거 여정이자 미래의 지도인 것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과 실패는 인간 만남관계의 결과물이다. 손자명법에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라고 했다. 상대를 보기도 모른다면 즉 "낯 놓고 그자도 모른다" 면 성공은 기약하기 어렵다.

동강대의 귀곡사주원?
우주의 원리를 풀이한 귀곡사주사주론이 너무나도 잘 맞아서 자신이 곡을 하고도 망했다 하여 부처전 귀곡사주를 동강대학교에서 공개한다.

2010년 상반기 개강

대학과별	교육과정	기간 및 요일	강의시간	수강료	기관전화
조선대학교	관상학 초급	32부터 매주 (주)14-17시	(아)19-22시	150,000원	230-7700-3
평생교육원	관상학 심화	35부터 매주 (금)요일(16주)	(아)19-21시		
동강대학교	시주명리학 초급	310부터 매주 수요일(15주)	(아)19-21시	100,000원	520-2516
평생교육원	시주명리학 심화	311부터 매주 목요일(15주)	(아)19-21시		

등록안내 조선대-조기등록 1,20-1,23까지 등록차 해당수강료 10%감면
장기등록 2, 1-2, 19까지
동강대 장기등록 1,25-2,27까지

등록방법 해당기관 직접방문이나 전화등록 후 금융기관 입금

장학특전 65세 이상 30% 감면 등 (각 학교 홈페이지 참조)

교육컨설팅 소속 동양철학 연구원장 김경준

문의: 각 대학교 전화 홈페이지 방문 강사 011-644-7232

한라 친환경 전동운반차

농림부 농기계 구입자금
동차 지원 8%
(이전 지원 5%만 적용 가능)

농촌, 과수원, 농장에도~
하우스에도~
마트, 시장에서도 배송할때도~
창고에도~

안전한 운송수단을 원하신다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라 전동운반차로 바꾸세요!

무중량 친환경 일체형에 세제를 사용안함
• 최대 전속력 약 5.000원 정도도 부담이 적은
• 최신식 배터리로 사본미리 소용량 선들이 가능함

엔제 에어제닉 펌프 A/S
• 부속의 수리비를 원상회복 A/S가 가능합니다.

정기적인 정비점검으로 운행 50% 수리비용 최소화
• 판매가의 90% 상가저리유저, 1년 가시 5년 상한, 연리 3%
• 중전속 10km/유저(적재량 200kg)

일반 유류 운반차 유류비용으로 한라 전동 운반차 지급 가능

한라셀텍(주) TEL 062) 956-8823
061) 852-8896
H-P 010-9468-3282

해령법률경매 사원 모집중

T:062)430-7117 H.P:011-629-0827 김법정 위치: 법원정문앞

대포·성 불규 (법원공무원 16-07-29)
전 대포대포 동향(비밀) 원주(비밀)
전 한국인(비밀) 원주(비밀) (사)
전 사단법인(비밀) 원주(비밀) (사)
전 경원전(비밀) 원주(비밀) (사)
전 사법부(비밀) 원주(비밀) (사)
전 355-31지구 원주(비밀) (사)
전 355-31지구 원주(비밀) (사)

군인사별 (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제지	면적(㎡)	건평(㎡)	최대가	비고
광주	북구	297/827	127㎡	7500	4세대
	북구	186/248	89㎡	4500	2세대
나주시	북부	1470/2534	169㎡	11500	1세대
	북부	172/304	33㎡	1900	1세대
함평군	함평읍	101/78	15㎡	1000	1세대
	함평읍	1878/361	45㎡	2500	2세대
영광군	영광읍	373/317	45㎡	2500	2세대
	영광읍	290/303	19㎡	2500	2세대

군인사별 (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제지	면적(㎡)	건평(㎡)	최대가	비고
광주	북구	536/1583	127㎡	7500	4세대
	북구	320/1188	169㎡	11500	1세대
나주시	북부	457/1828	132㎡	4500	2세대
	북부	294/828	75㎡	4500	2세대
나주시	북부	380/798	53㎡	3000	2세대
	북부	411/947	89㎡	4500	2세대
담양군	담양읍	680/1124	49㎡	2500	2세대
	담양읍	985/678	49㎡	1500	1세대
함평군	함평읍	182/485	25㎡	2500	2세대
	함평읍	170/714	45㎡	2500	2세대
영광군	영광읍	1035/292	15㎡	9500	2세대
	영광읍	2380/303	19㎡	7500	2세대

군인사별 (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제지	면적(㎡)	건평(㎡)	최대가	비고
광주	북구	81/28	25㎡	1500	1세대
	북구	485/178	25㎡	1500	1세대
나주시	북부	139/228	15㎡	800	1세대
	북부	117/258	15㎡	700	1세대
담양군	담양읍	680/1124	49㎡	2500	2세대
	담양읍	985/678	49㎡	1500	1세대
함평군	함평읍	182/485	25㎡	2500	2세대
	함평읍	170/714	45㎡	2500	2세대
영광군	영광읍	1035/292	15㎡	9500	2세대
	영광읍	2380/303	19㎡	7500	2세대

군인사별 (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제지	면적(㎡)	건평(㎡)	최대가	비고
광주	북구	536/1583	127㎡	7500	4세대
	북구	320/1188	169㎡	11500	1세대
나주시	북부	457/1828	132㎡	4500	2세대
	북부	294/828	75㎡	4500	2세대
나주시	북부	380/798	53㎡	3000	2세대
	북부	411/947	89㎡	4500	2세대
담양군	담양읍	680/1124	49㎡	2500	2세대
	담양읍	985/678	49㎡	1500	1세대
함평군	함평읍	182/485	25㎡	2500	2세대
	함평읍	170/714	45㎡	2500	2세대
영광군	영광읍	1035/292	15㎡	9500	2세대
	영광읍	2380/303	19㎡	7500	2세대

군인사별 (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제지	면적(㎡)	건평(㎡)	최대가	비고
광주	북구	81/28	25㎡	1500	1세대
	북구	485/178	25㎡	1500	1세대
나주시	북부	139/228	15㎡	800	1세대
	북부	117/258	15㎡	700	1세대
담양군	담양읍	680/1124	49㎡	2500	2세대
	담양읍	985/678	49㎡	1500	1세대
함평군	함평읍	182/485	25㎡	2500	2세대
	함평읍	170/714	45㎡	2500	2세대
영광군	영광읍	1035/292	15㎡	9500	2세대
	영광읍	2380/303	19㎡	7500	2세대

군인사별 (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제지	면적(㎡)	건평(㎡)	최대가	비고
광주	북구	536/1583	127㎡	7500	4세대
	북구	320/1188	169㎡	11500	1세대
나주시	북부	457/1828	132㎡	4500	2세대
	북부	294/828	75㎡	4500	2세대
나주시	북부	380/798	53㎡	3000	2세대
	북부	411/947	89㎡	4500	2세대
담양군	담양읍	680/1124	49㎡	2500	2세대
	담양읍	985/678	49㎡	1500	1세대
함평군	함평읍	182/485	25㎡	2500	2세대
	함평읍	170/714	45㎡	2500	2세대
영광군	영광읍	1035/292	15㎡	9500	2세대
	영광읍	2380/303	19㎡	7500	2세대

군인사별 (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제지	면적(㎡)	건평(㎡)	최대가	비고
광주	북구	81/28	25㎡	1500	1세대
	북구	485/178	25㎡	1500	1세대
나주시	북부	139/228	15㎡	800	1세대
	북부	117/258	15㎡	700	1세대
담양군	담양읍	680/1124	49㎡	2500	2세대
	담양읍	985/678	49㎡	1500	1세대
함평군	함평읍	182/485	25㎡	2500	2세대
	함평읍	170/714	45㎡	2500	2세대
영광군	영광읍	1035/292	15㎡	9500	2세대
	영광읍	2380/303	19㎡	7500	2세대

군인사별 (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제지	면적(㎡)	건평(㎡)	최대가	비고
광주	북구	536/1583	127㎡	7500	4세대
	북구	320/1188	169㎡	11500	1세대
나주시	북부	457/1828	132㎡	4500	2세대
	북부	294/828	75㎡	4500	2세대
나주시	북부	380/798	53㎡	3000	2세대
	북부	411/947	89		